

맥상 분류 기준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 『瀕湖脈學』을 중심으로 -

이주호 · 최환수* · 김철중**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국한의학연구원, **교신저자

Abstract

The Methodic Study on a Standard of Classification of Pulse Condition -a Focus of 『The Pulse Studies of Bin-Ho(瀕湖脈學)』-

Lee Juho, Choi Hwansoo*, Kim Chuljung**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Corresponding Author

The Standardization of terms in The Pulse studies(脈學) is a need for development of learning. This study, for the correction of existing misused terms in The Pulse studies, we study on modernly and objectively the terms in The Pulse studies.

By a focus of 『The Pulse Studies of Bin-Ho(瀕湖脈學)』, we studies on the new classification of pulse condition.

The error of a existing technical books on Pulse studies begin that the classification of pulse condition is not establish a Standardization. For the correction of existing misused terms in The Pulse studies, we study on the pulse condition is expressed objectively a blood vessel that it is a subject of pulse condition. The expression of blood vessel contain a depth of blood vessel, a speed of pulsation, a curve of blood vessel, thickness of blood vessel, a diameter of blood vessel in expand and contract of blood vessel, a interval in expand and contract of blood vessel, a distinctness on a boundary of blood vessel, a speed of blood flow in blood vessel, a volume of blood flow in blood vessel, a condition of blood in blood vessel, a propelling power of blood vessel. These is standard of the new classification of pulse condition.

Key words : pulse condition, Pulse studies, 『The Pulse Studies of Bin-Ho』, diagnosis, feeling of pulse

1. 서론

전통 한의학의 진단방법은 망(望)·문(聞)·문(問)·절(切)의 사진(四診)이 중심이 된다. 이러한 사진법은 의사의 오감(五感)과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을 중심으로(추상적 다양성) 환자를 인식한다. 전통적으로 맥진은 ‘사진방법의 마지막에 위치(居於四診之末)’¹⁾해서 질병의 상태를 구별하고, 그 기전을 파악해서 치료를 유도하고 예후를 예측하도록 함으로써²⁾ 한의학의 진단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한방 임상에서 맥진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가치와 활용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한방 임상가들조차 전통적인 맥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방 임상에서 맥상 구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즉 한의사들이 서로 각각 다른 맥을 말할 때 같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같은 맥을 각자의 주관적인 표현으로 다른 맥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맥학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맥학의 학문적 신뢰성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빈호맥학』은 이시진(李時珍)이 1564년에 편찬한 명대(明代)의 중요한 맥학 전문서적이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부분은 27맥의 맥상(脈象)을 논술하였고 뒷부분은 이언문(李言聞)이 최가언(崔嘉彦)의 『사언맥결(四言脈訣)』을 산보(刪補)해서 만든 『사언거요(四言舉要)』³⁾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맥학을 서술하였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맥상에 대해 우선 간략하게 기존의 문헌을 인용하였고 다시 체상시(體狀詩), 상류시(相類詩), 주병시(主病詩)나 혹은 체상상류시(體狀相類詩)라는 항목을 두어 여러 가지 맥상의 특징, 감별과 주병(主病)을 각각 서술하였다⁴⁾. 특히 『빈호맥학』은 맥학의 발전

에 있어서 맥학의 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⁵⁾ 또한 기존의 『맥결』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맥학을 정리함으로써 이후의 맥학 발전에 있어서 표준이 되었다.

따라서 임상 활용에서의 맥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맥학의 보급과 표준화에 의의가 있는 『빈호맥학』을 중심으로 27맥의 맥상에 대해 살펴보고 진맥의 기준과 맥상 해석에 대한 현대적인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빈호맥학』을 중심으로 한 27개 맥상 분류

여기서는 우선 임상가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빈호맥학을 중심으로 맥의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빈호맥학에서는 맥을 기본적으로 27맥으로 분류하고 있다. 원문은 『빈호맥학역주(瀕湖脈學譯註)』를 중심으로 하고 『국역 빈호맥학, 사언거요, 기경팔맥고, 부맥결고증(國譯 瀕湖脈學, 四言舉要, 奇經八脈巧附脈訣巧證)』을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6,19)}

2.1.1. 맥상에 대한 원문 및 해석

1) 부맥(浮脈)

浮脈 舉之有餘 按之不足(脈經).

如微風吹鳥背上毛 脈厭轟轟(輕汎貌). 如循榆莢(素問). 如水漂木(崔氏). 如捻葱葉(黎氏)

부맥은 맥관에서 지단을 들면 힘이 있고 지단으로 누르면 힘이 없다. 마치 미풍이 새둥위의 터럭에 부는 것과 같이 가볍게 뜨며 마치 榆莢을 어루만지듯 얇고 가볍다. 마치 물위에 나무가 뜬 것 같이 표천부에서 감지된다.

2) 침맥(沈脈)

沈脈重手按至筋骨乃得(脈經). 如綿裏砂 內剛外柔(楊氏). 如石投水必極其底.

침맥은 손끝으로 맥관을 깊이 눌러서 근골에 이르러야 맥상이 감지된다. 마치 솜으로 모래를 감싸 놓은 것 간아 내부는 단단하나 외부는 부드럽다. 돌을 물속에 던져 밑바닥에 가라앉은 것 같다.

3) 지맥(遲脈)

遲脈一息三至 去來極慢(脈經).

지맥은 일호흡에 3회 박동하여 맥기가 오가는 것이 매우 느리다.

4) 삭맥(數脈)

數脈一息六至 脈流薄疾

삭맥은 일호흡에 6회 박동한다. 삭맥은 맥의 흐름이 매우 빠르다.

5) 활맥(滑脈)

滑脈往來前卻 流利展轉 替替然如珠之應指(脈經). 瀉瀉如欲脫.

활맥은 맥기가 왕래하고 전진 후퇴하는 것이 매끄럽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구슬이 손끝에 감촉되어지는 것 같다. 땀이 동글동글 흘러내리는 것 같다.

6) 색맥(澀脈)

澀脈細而遲 往來難 短且散或一止復來(脈經). 參伍不調(素問). 如輕刀刮竹(脈訣). 如雨沾沙(通眞子). 如病蠶食葉.

색맥은 세하고 지하여 맥기가 왕래하는 것이艱難하고, 단하면서 산하며 혹 한번씩 맥박이 그쳤다가 다시 온다. 색맥은 맥상이 들죽날죽하여 고르지 않다. 예리한 칼로 죽피를 가볍게 긁어 놓은 것 같다. 모래위에 비가 뿌려진 자국 같다. 병든 누에가 뽕잎을 갠아 먹은 흔적 같다.

7) 허맥(虛脈)

虛脈遲大而爽 按之無力 隱指豁豁然空(脈經).

허맥은 지대하면서 연하고 맥박이 누르면 힘이 없으며 손끝에 숨겨진 감촉은 넓으나 공허하기만 하다.

8) 실맥(實脈)

實脈浮沈皆得 脈大而長 應指愔愔然(脈經).

실맥은 부침에서 모두 감촉되는데 맥상이 대장하고 약간 현하며 견실하게 지단에 감응한다.

9) 장맥(長脈)

長脈不大不小 迢迢自若(朱氏). 如揭長竿末梢 爲平如引繩 如循長竿 爲病(素問).

장맥은 대하지도 소하지도 않아 대맥 소맥과는 체상이 매우 다르다. 마치 긴 낚시대를 들어서 그 끝을 만지듯 길면서 연약하여야 평맥이 되고 노끈을 견인하여 놓은 것 같거나 긴 낚시대를 어루만지는 것 같으면 병맥이 된다.

10) 단맥(短脈)

短脈不及本位(脈訣). 應指而迴不能滿部(脈經).

단맥은 본연의 위치를 채우지 못한다. 손끝에 감응되는 것이 되돌아와서 본래의 위치를 채우지 못한다.

11) 홍맥(洪脈)

洪脈指下極大(脈經). 來盛去衰(素問). 來大去長(通眞子).

홍맥은 손끝에 매우 대하게 감응된다. 맥기가 오는 것이 성대하고, 가는 것이 미약하다. 맥기가 오는 것이 대하고 가는 것은 장하다.

12) 미맥(微脈)

脈微極細而爽 按之如欲絕 若有若無(脈經). 細而秒長.

미맥은 매우 세하고 연하여 맥박을 누르면 끊어질 것 같아 있는 듯 없는 듯한 맥상이다. 세하면서 약간 장하다.

13) 긴맥(緊脈)

緊脈來往有力 左右彈人手(素問). 如轉索無常(仲景). 數如切繩(脈經). 如紉算線(丹溪).

맥기가 오가는 것이 힘이 있고 좌우로 손끝을 튕긴다. 새끼줄을 돌리듯 일정하지 않다. 삭(數)한 것이 당겨졌던 끈이 끊어지는 것 같다. 종다래끼 실을 떼어 놓은 것 같다.

14) 완맥(緩脈)

緩脈去來小駛于遲(脈經). 一息四至(戴氏). 如絲在經不卷其軸應指和緩往來甚勻(張太素). 如初春楊柳舞風之象(楊玄操). 如微風輕颭柳梢(滑伯仁).

맥기가 오가는 것이 지맥보다 조금 빠르다. 일식에 네 번 박동한다. 실에 날줄이 걸려있고 바디집이 감겨있지 않은 것과 같아서 손끝에 감응되는 것이 화완하고, 맥기가 오가는 것이 매우 고르다. 초봄에 버들가지가 바람에 춤추는 형상이다. 미풍에 버들가지가 가볍게 펄렁이는 것과 같다.

15) 규맥(芤脈)

芤脈浮大而爽 按之中央空兩邊實(脈經). 中空外實狀如慈蔥.

규맥은 부대하고 연하고 맥박을 누르면 가운데는 비어있고 양면은 실하다. 가운데는 공허하고 밖은 실하여 자총과 같은 형상이다.

16) 현맥(弦脈)

弦脈端直以長(素問). 如張弓弦(脈經). 按之不移綽綽如按琴瑟弦(巢氏). 狀若箏弦(脈訣). 從中直過挺然指下(刊誤).

현맥은 단직하면서 장하다. 잡아당긴 활줄 같다.

맥박을 누르면 이동하지 않고 거문고나 비파의 현을 누르듯 차분하고 여유가 있다. 맥박의 가운데를 단직하게 통과하여 지단에 감응되는 것이 뚜렷하다.

17) 혁맥(革脈)

革脈弦而芤(仲景). 如按鼓皮(丹溪). 혁맥은 현하면서 규하다. 마치 북가죽을 누르는 것 같다.

18) 뇌맥(牢脈)

牢脈似沈似伏 實大而長 微弦(脈經). 뇌맥은 침맥이나 복맥 비슷하고 실하면서 대하고 장하며 약간 현하다.

19) 유맥(濡脈)

濡脈極潤而浮細 如綿在水中 輕手相得按之無有(脈經). 如水上浮漚. 유맥은 매우 연하고 부하여서 비단이 물 가운데 떠있는 것 같아 가볍게 누르면 감응되나 깊이 누르면 감응이 없어진다. 마치 물위에 떠있는 거품 같다.

20) 약맥(弱脈)

弱脈極軟而沈細 按之乃得舉手無有(脈經). 약맥은 매우 연하고 침세하여 맥박을 누르면 감득되나 손가락을 들면 맥상이 없어진다.

21) 산맥(散脈)

散脈大而散 有表無裏(脈經). 渙漫不收(崔氏). 無統紀 無拘束 至數不齊 或來多去少 或去多來少 渙散不收 如楊花散漫之象(柳氏). 산맥은 대하고 산하여서 표부에서는 감응되나 이부에서는 감응되지 않는다. 맥박이 풀어지고 흩어져서 모여지지 않는다. 통기가 없고 구속하는 것이 없으며 맥동의 횟수가 일정하지 않아서 맥기가 오는 것이 많으나 가는 것이 적기도 하고 맥기가 가는

것이 많으나 오는 것이 적기도 하며, 맥박이 흩어지고 모이지 않아서 마치 양화가 흩어지는 형상과 같다.

22) 세맥(細脈)

細脈小大于微而常有 細直而栗 若絲線之應指(脈經).

세맥은 미맥보다는 약간 굵고 맥상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감응되고 가늘며 곧고 연하여서 실이 손 끝에 감응되는 것과 같다.

23) 복맥(伏脈)

伏脈重按着骨指下裁動(脈經). 脈行筋下(刊誤).

복맥은 손끝을 깊이 눌러서 뼈에 닿아야 맥이 박동한다. 맥박이 근의 아래에서 유행한다.

24) 동맥(動脈)

動乃數脈 見于關上下 無頭尾 如豆大 厥厥動搖.

동맥은 삭한 맥상이 관부에 나타나 상하로 두미가 없고 마치 콩모양으로 둥근 것이 짧게 짧게 중요하다.

25) 촉맥(促脈)

促脈來去數 時一止復來(脈經). 如蹶之趣徐疾不常(黎氏).

촉맥은 맥기가 오가는 것이 삭하고 때때로 한번씩 정지하였다가 다시 박동한다. 땀박질하는 것처럼 빠르게 박동하기도하고 느리게 박동하기도 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

26) 결맥(結脈)

結脈源來緩 時一止復來(脈經).

결맥은 오가는 것이 완한 가운데 때로 한번씩 정지하였다가 다시 박동한다.

27) 대맥(代脈)

代脈動而中止 不能自還 因而復動(仲景). 脈至還入

尺良久方來(吳氏).

대맥은 박동하다가 중지하여 스스로 맥기가 되돌아올 수 없고 조금 있다가 이어서 다시 박동한다. 맥기가 이르렀다가 척부로 되돌아가 한참 뒤에야 맥기가 다시온다.

2.1.2. 『빈호맥학』에 나타나는 『맥결』 비판에 대한 고찰

『빈호맥학』에서 체상을 잘못 표현한 『맥결』의 오류들을 비판한 부분들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이는 맥학에서 맥의 체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부맥(浮脈)

[맥결비판] 尋之如太過 乃浮兼洪緊之象 非浮脈也.

[해석] 심맥(尋脈)하여 태과한 것과 같은 것이라 하였으나 이는 부맥에 洪과 緊을 겸한 것이므로 부맥이 아니다.

[설명] 홍맥, 혁맥, 유맥 등이 부(浮) 부위에서 감응하지만 이것들을 부맥이라고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2) 침맥(沈脈)

[맥결비판] 緩度三關狀如爛綿者 非也. 沈有緩數及各部之沈爛 綿乃弱脈 非沈也.

[해석] 침맥은 완(緩)한 것이 촌관척 3관을 지나가서 형상이 난면(爛綿)과 같다고 하였으나 잘못된 것이다. 침맥에 완이나 삭을 겸할 수 있고 촌관척 각 부위에 침맥이 있을 수 있으니 난면(爛綿)과 같은 것은 약맥이지 침맥이 아니다

[설명] 위와 같은 표현이겠지만 부맥이나 침맥은 맥의 위치만을 기준으로 정해진 맥이다. 따라서 명사로서는 협소하지만 형용사적인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3) 지맥(遲脈)

[맥결비판] 重手乃得 是有沈無浮 一息三至 甚爲易見 而曰隱隱 曰狀且難 是瀯脈矣. 其謬可知.

[해석] 맥박을 깊이 눌러야 감촉된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침부(沈部)맥은 있으나 부부(浮部)맥은 없는 것이다. 1호흡에 3회 박동하여 매우 쉽게 볼 수 있는데도 희미하여 분명치 않다. 또 맥상이 간난(艱難)하다 하였다. 이러한 맥상은 색맥이니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설명] 지맥은 오로지 맥동의 횟수만을 가지고 정의하는 맥이므로 중수내득(重手乃得)이라는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즉 맥상을 분류하는 기준을 개인적으로 잘못 세운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활맥(滑脈)

[맥결비판] 按之卽伏 三關如珠 不進不退 是不分浮滑沈滑尺寸之滑也 今正之.

[해석] 맥박을 누르면 잠복하고 촌관척이 구슬과 같아 전진과 후퇴도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부활과 침활을 구분하지 않고 촌척에 활만을 말한 것이므로 이제 교정한다.

[설명] 이 또한 혈액의 흐름 양태를 가지고 정의하는 활맥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지엽적인 활맥을 전체적인 활맥으로 표현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5) 색맥(瀯脈)

[맥결비판] 指下尋之似有 舉指全無 與脈經所云 絕不相干

[해석] 지단(指端)으로 눌러서 맥상을 찾으려 있는 것 같으나 지단을 들면 감촉이 전혀 없다고 하여 『맥경』에서 말한 것과 전혀 다르다.

[설명] 색맥은 맥관 안을 채우고 있는 혈액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지면서 탄력을 가지고 있는 맥관

이 점점 가늘어 지고 또한 맥의 흐름이 비어지는 곳이 나타나는 것이 이 맥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6) 허맥(虛脈)

[맥결비판] 尋之不足 舉之有餘 止言浮脈 不見虛狀.

[해석] 맥박을 누르면 힘이 없고 지단을 들면 힘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부맥을 말한 것이지 허맥의 맥상이 아니다.

[설명] 허맥이란 ‘지대이연 안지무력’한 맥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단순히 맥관이 대(大)하므로 맥동이 주로 천표부위에서 나타나는 것을 허맥의 기준으로 할 수는 없음을 명확하게 하였다.

7) 실맥(實脈)

[맥결비판] 如繩應指來 乃繁脈 非實脈也

[해석] 노끈이 손끝에 감응되듯 맥기가 온다고 하였으나 이는 긴맥이지 실맥이 아니다

[설명] 실맥은 ‘浮沈皆得 脈大而長 微弦 應指愴愴然’한 맥으로 맥관의 경계가 뚜렷하여 맥이 현맥이나 ‘긴맥의 양상을 나타내기는 해도 『맥결』의 표현은 실맥이 아니라는 것이다.

8) 홍맥(洪脈)

[맥결비판] 季夏宜之 秋季冬季發汗通腸 俱非洪脈所宜 皆謬也.

[해석] 하계(夏季)에 정상적인 맥상이라 하였으나 추계(秋季)나 동계(冬季)에 발한통장(發汗通腸)할 맥상이 홍맥이 아니므로 잘못된 것이다.

[설명] 홍맥은 오는 것이 크고 가는 것이 길게 늘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맥관의 팽창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수축은 느리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몸 안에 물질을 팽창시키는 성질을 지닌 열이 너무 많아서 정상시보다 수축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맥상이라고 볼 수 있다.

9) 긴맥(緊脈)

[맥결비판] 寥寥入尺來. 崔氏言 如線皆非緊狀 或以浮緊爲弦 沈緊爲牢 亦近似耳.

[해석] 공허한 척부(尺部)로 들어간다고 하였고, 최씨는 실과 같다고 하였으나 모두 긴맥의 체상이 아니다. 혹 부긴한 맥이 현맥이 되고 침긴한 맥이 뇌맥이 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비슷한 말이다.

[설명] 긴맥은 맥의 박동시에 혈관 벽에 이상 박동이 감지되는 맥이고 그 이상 박동이 발생하는 위치와 횡수가 일정하지 않은 맥이다.

10) 규맥(虯脈)

[맥결비판] 兩頭有中間無 是脈斷截矣 又言主淋瀝 氣入小腸 與失血之候相反 誤世不小

[해석] 양쪽 머리는 있으나 중간이 없다 하였으니 이는 맥박이 단절(斷截)된 것이다. 또 심의 열기가 소장으로 들어가 주로 소변임력이 된다고 하여서 규맥이 실혈의 맥후인 것과는 상반되어 후세를 잘못 인도함이 적지 않다.

[설명] 대개 맥상에서 머리라 함은 촌관척에서 보았을 때 촌관척의 각각의 경계부위를 말함이다. 그런데 규맥은 그 머리 쪽을 제외하고 맥관의 내용물이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맥관 인쪽의 내용물 즉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혈액이 심장의 박출력으로 혈관벽 쪽으로 붙어서 진행을 하여 발생하는 맥으로써 이를 마치 파와 같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촌관척 경계부위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맥관의 중앙과 맥관벽의 경계부위의 혈액량의 차이로 규정되어지는 맥인 것이다. 따라서 중간이 없다고 한 것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리 가운데의 중간이 비었다고 한다면 이는 크게 틀린 말이다.

11) 현맥(弦脈)

[맥결비판] 時時帶數 又言 脈繁狀繩牽 皆非弦象

今削之.

[해석] 현맥은 때로 삭을 띤다고 하였고 현맥은 긴한 형상이 줄을 당기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나 모두 현의 맥상이 아니므로 이제 삭제한다.

[설명] 현맥은 한기나 통증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긴장되어 맥관의 경계 자체가 뚜렷해지는 대표적인 맥상이고 일정한 위치와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맥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맥결』의 설명은 오로지 긴맥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맥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2) 뇌맥(牢脈)

[맥결비판] 尋之則無 按之則有 云 脈入皮膚辨息難 又以牢爲死脈 皆孟浪謬誤.

[해석] 심법(尋法)을 쓰면 없고 누르면 있다고 하였으며 맥박이 피부속으로 들어가서 맥식(脈息)을 분별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뇌맥은 사맥(死脈)이라 하였으니 모두 맹랑한 잘못된 말이다.

[설명] 뇌맥은 침부위에 있는 유력한 맥상으로 몸 안에 한기가 있거나 그로 인한 정체 즉 장가(癥瘕)나 적취(積聚)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맥상이다. 따라서 침부위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력한 것이 반드시 같이 갖추어져야만 하는 맥상이다.

13) 유맥(濡脈)

[맥결비판] 按之似有 舉還無 是微脈 非濡也.

[해석] 누르면 있는 것과 같고 손끝을 들면 도리어 없어진다 하였으나 이는 미맥이지 유맥이 아니다.

[설명] 유맥은 ‘極栗而浮細 如帛在水中 輕手相得 按之無有’라고 표현되어지는 맥으로 힘이 없고 부부(浮部)에서 뛰는 맥이다.

14) 약맥(弱脈)

[맥결비판] 輕手乃得 黎氏譬如浮瀕 皆是濡脈 非

弱也

[해석] 가볍게 눌러야 감득된다고 하였고 여민 수는 비유하자면 부유(浮濡)한 맥이다 하였으나 이것은 유맥이지 약맥이 아니다.

[설명] 약맥은 ‘極稟而沈細 按之乃得舉手無有’라고 하여 힘이 없고 침부에 뛰는 맥인데 부부에서 박동하는 유맥과 혼동을 하여 기술하였다.

15) 세맥(細脈)

[맥결비판] 往來極微 是微 反大于細矣. 與經相背.

[해석] 맥의 왕래가 매우 미약하다 하였으나 미맥은 도리어 세맥보다 크니 『맥경』의 뜻과는 서로 위배된다.

[설명] 세맥과 미맥은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그 추진력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즉 미맥은 맥관을 채우고 있는 혈액의 양만 적은 것이 아니라 맥박의 추진력도 부족하여 맥동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반해 세맥은 미맥보다는 그 추진력이 강하고 다만 혈관안의 혈액의 양이 부족하여 탄력성을 가진 혈관이 혈액의 부족한 양만큼 직경을 줄여서 나타난 맥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16) 복맥(伏脈)

[맥결비판] 尋之似有 定息全無 殊爲舛謬.

[해석] 심법(尋法)을 쓰면 있는 것 같으나 정식(定息)을 하였을 때에 전혀 없다고 하여 매우 잘못 말하였다.

[설명] 복맥은 맥동이 매우 깊숙한 곳에서 감지되어지는 맥으로 부중침의 개념에서 구별되어지는 맥이다. 즉 맥동의 깊이에 의해서만 분류되어지는 맥이다.

17) 동맥(動脈)

[맥결비판] 尋之似有 舉之還無 不離其處 不往不

來 三關沈沈 含糊謬妄殊 非動脈. 詹氏言 其形鼓動如鉤如毛者 尤謬

[해석] 심법(尋法)을 쓰면 있는 것 같고 거법(擧法)을 쓰면 도리어 없어지며 한 곳을 떠나지 않고 맥기가 왕래하지 않으며 촌관척이 고요하다고 하였으니 모호하고 분명치 않아 동맥과는 아주 다르게 말하였다. 침(詹)씨는 맥의 형상이 고동하여 구맥(鉤脈)이나 모맥(毛脈)과 같다고 하였으니 더욱 잘못된 것이다.

[설명] 맥동의 부위가 일정한 부위에서 뚜렷하게 집중어 되어지는 맥으로 일반적으로 인체의 기가 서창(舒暢)하지 못하여 한곳에 집중되어질 때 나타나는 맥이다. 즉 박동의 부위를 부중침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촌관척을 기준하여 구분하는 대표적인 맥상이다. 물론 촌관척중 한 부위만 뛰는 것은 아니고 그중 어느 한 곳이 집중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 촉맥(促脈)

[맥결비판] 并居寸口 不言時止者謬矣. 數止爲促 緩止爲結 何獨寸口哉.

[해석] 촌구에 있다 하였고 때로 정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삭한 가운데 정지하는 것이 촉맥이고 완한 가운데 정지하는 것이 결맥이니 어찌 홀로 촌구에만 있게 되겠는가?

[설명] 촉맥은 삭한 가운데 정지하는 맥으로 정지시에는 촌관척이 모두다 맥동이 정지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맥동의 부위적인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맥동의 규칙성이 기준이 되어지는 맥이다.

19) 결맥(結脈)

[맥결비판] 或來或去 聚而却還 與結無關.

[해석] 맥기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맥기가 모였다가 문득 되돌아간다 하여 결맥과는 무관한 말을 하였다.

2.2. 맥상 분류 기준

2.2.1. 맥상 분류 기준 설정의 중요성

1) 맥상에서의 기준의 중요성

엄격한 의미의 부맥(浮脈)이라 함은 부중침의 부위에서 지단(指端)을 부부위(浮部位)에 대어주었을 때 맥동이 존재하고 좀 더 누르면 맥동이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부맥이란 단어는 고유한 명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부맥이라 함은 철저하게 맥관의 위치만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맥결에서 부맥을 “심맥(壽脈)하여 태과한 것과 같은 것”이라 표현한다면 이는 맥상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맥관의 위치만을 가지고 말하는 부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맥의 세력 즉 추진력이나 저항력을 같이 표현하는 것으로 그 기준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표현상으로 보면 지단을 올리면 바로 맥이 느껴진다는 의미는 있으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태과하다”는 표현으로 이는 부맥을 표현함에 있어서 쓸데없는 사족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표현으로 인해서 ‘부대유력(浮大有力)’ 혁맥이나 홍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부대유력(浮大有力)’에서 부라는 단어는 명사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형용사적 의미인 것이다. 즉 혁맥이나 홍맥이 천표(淺表)부위에서 뛰는 맥상으로 부맥의 범주에 속할 수는 있지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맥결에서 표현한 체상은 혁맥이나 홍맥이지 부맥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맥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단어하나가 잘못 사용된다면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2) 맥학 전문서의 판독에 대한 오류⁶⁾

위에서 보듯이 맥상을 표현하는 단어의 혼용이

전문적인 맥학 서적인 맥결에서도 많이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예전에만이 아니라 현대에도 매우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의과 대학에서 교과서로 쓰였던 성보사에서 출간한 “한방진단학”의 허맥편에서도 “허삭(虛數)” 또는 “허이소(虛而小)”라는 어이없는 표현의 검맥이 나오는데 이 또한 엄격한 맥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존재 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허맥의 체상은 “遲大而栗 按之無力 隱指豁豁然空으로 허맥은 지대(遲大)하면서 연하고 맥박이 누르면 힘이 없으며 손끝에 숨겨진 감촉은 넓으나 공허하기만 하다”이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본다면 허맥은 “맥동수가 느리고” “맥관의 지름이 넓고” “맥의 추진력이 부족하고” “맥의 경계가 부드럽고” “맥관 안의 내용물이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맥이 허삭(虛數)하다”라는 맥상 조합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듯이 허맥 자체가 이미 지맥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허맥은 대(大)한 맥인데 “허이소(虛而小)”하다는 표현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표현이 된다. 아마도 이때의 허(虛)라는 글자의 의미는 무력하다는 형용사적인 표현을 명사와 혼동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는 “허이소(虛而小)”라 해서 허맥의 검맥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유맥이나 약맥으로 보아야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본다면 맥상을 표현하는데 있어 엄격한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27맥으로 대표되어지는 맥상에서는 그 맥상의 기준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을 충분히 객관화해야만 다른 맥학 서적에서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고 또한 그 오류가 표현하고자 하는 맥상을 정확하게 유추해 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2.2.2. 맥상 분류 기준

기존의 맥학 전문서에서의 맥상 표현은 매우 비유적이고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맥에 대해 “마치 미풍이 새 등위의 터럭에 부는 것과 같이 가볍게 뜨며 마치 유희(榆莢)을 어루만지듯 얇고 가볍다(如微風吹鳥背上毛 厭厭轟轟)”라고 설명한 것 등이다.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맥상에 대한 기존 맥학 전문서의 설명만을 근거해서는 맥진의 객관화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맥학 연구의 근거로 삼는 기존 텍스트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임상에서 진맥을 하다가 오진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한의학은 대체로 고대 문헌을 연구의 근거로 삼는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추상적인 표현들은 계속적으로 더 많은 혼동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맥상 분류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적인 분류 기준들을 적용해서 맥상을 재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맥의 구성요소는 한방에서 위기(衛氣)라고 일컬어지는 추진력 그리고 영혈(營血)이라고 일컬어지는 혈액과 혈관자체로 구성되어져 있다. 따라서 결국은 맥상을 구분하는 기준도 이것들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1) 맥의 부침을 구분한다.
이것은 그 혈관의 맥동이 부중침 부위에서 어느 곳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 2) 맥이 반듯한지 구부러졌는지를 구분한다.
이것은 촌관척을 지나는 혈관이 얼마나 반듯한지를 살피는 것이다.
- 3) 맥의 지사를 구분한다.
일정시간에 뛰는 맥동수를 구분한다.
- 4) 맥관의 굵기를 구분한다.
평소 환자의 맥의 굵기 또는 질병 발생시 맥의 굵기를 구분한다.
- 5) 맥관의 두께를 구분한다.
맥관 벽의 두께가 굵은지 얇은지를 구분한다.
- 6) 맥관의 팽창과 수축시의 맥관 지름의 차이를 구분한다.
맥관의 팽창시와 수축시의 맥관의 지름을 차이를 구분한다.
- 7) 맥관의 팽창과 수축시 시간의 차이를 구분한다.
환자마다 맥관이 팽창하는 시간과 수축하는 시간의 차이를 구분한다.
- 8) 맥관의 경계가 뚜렷한지 희미한지를 구분한다.
맥관벽의 경계가 뚜렷한지 희미한지를 살핀다.
- 9) 맥의 혈류 흐름의 속도를 구분한다.
같은 맥동수에서도 혈류 흐름의 빠름과 느림을 구분한다.
- 10) 맥의 혈류량을 구분한다.
같은 시간 내에 혈관의 안쪽으로 흐르는 혈류량의 차이를 구분한다.
- 11) 맥관 안의 혈액의 양태를 구분한다.
맥관안의 혈액의 탁함과 맑음을 구분하고 또한 혈액의 분포 등을 구분한다.
- 12) 맥관의 추진력을 구분한다.
맥관 안의 추진력과 저항력을 구분한다.

위의 기준들은 적용해서 예로서 대표적인 상류맥인 세맥과 미맥을 구분해 보았다. 『맥경』에서는 세맥과 미맥에 대해 각각 ‘細脈小大于微而常有 細直而奕 若絲線之應指’,라 하고 ‘微脈極細而奕 按之如欲絕 若有若無.’이라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이 맥들은 평소에 맥관이 지름이 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들이 허증성 병에 노출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맥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세맥과 미맥의 차이를 구분해 보면 아마도 질병의 시작단계에서는 세맥이 먼저 나타난다고 추측 되어진다. 즉 혈관을 채우는 내용이 부족해지면서 탄력을 가지고 있는 혈관이 늘어지게 되는데 그 상태의 맥을 세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맥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아직은 맥의 추진력이 있을 때이므로 맥동이 항상 존재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그러다가 병이 더 깊어져서 위기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즉 세맥의 상태에서 추진력이 상실되면서 맥동이 있는 듯 없는 듯한 미맥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3. 고찰 및 결론

한의학은 19세기 서양의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내에서 중심이 아닌 주변에 머무르고 있다. 한의학에 대한 학문연구에 있어서 자연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문제와 아울러 연구의 결과들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비판을 볼 때⁷⁾ 한의학은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발전을 계속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특히 지금까지도 한의학적 임상에서 활용되는 전통적인 진단방법인 보고[望診], 듣고[聞診], 묻고[問診], 만지는[切診] 등은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거의 의존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진단방법을 자세히 보면, 망진은 한의학의 독특한 기준인 신기(神氣)와 피부색깔, 형체 및 자세를 눈으로 관찰하는 기술과 신체 각 부위 예를 들어 눈이나 귀, 혹은 손톱, 피부 및 혀를 관찰하고, 가래·구토물·대소변 등의 배출물과 소아의 경우 지문을 눈으로 관찰하는 기술이며, 문진(問診)은 목소리·호흡소리·기침소리·

구토소리나 딸꾹질 소리를 듣는 기술과 몸 전체 혹은 거드랑이나 입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나 배출물의 냄새를 맡는 기술이다. 문진(問診)은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진단하는 기술로서 증상(症狀)감별, 증후(證候)감별과 앞에서 언급한 진단의 예비 진단을 근거로 실시하는 진단기술이며, 절진(切診)은 손목의 특정부위 혹은 박동을 손가락으로 느낄 수 있는 부위에서 진단하는 기술 및 피부·팔과 다리·복부 등을 만져서 진단하는 기술이다⁸⁾.

이러한 주관적인 전통 진단방법에 대해 아직도 객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의 학문연구에 대한 검증문제, 자연과학적 방법 적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의학 임상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며 결국 학문과 임상의 발전상에서 정체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의학의 전통적인 진단방법을 어떻게 객관화 할 것인가는 한의학 발전의 중요한 극복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또한 맥진은 ‘사진방법의 마지막에 위치(居於四診之末)’¹⁾해서 질병의 상태를 구별하고, 그 기전을 파악해서 치료를 유도하고 예후를 예측하도록 함으로써²⁾ 한의학의 진단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맥진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보면 『내경』^{9,10)}, 『난경』^{11,12)}, 『맥경』^{13,14,15)} 등의 맥학 전문서에 관한 연구, 맥진 방법 등의 맥학 이론에 관한 연구¹⁶⁾, 맥진기 개발에 관한 연구^{17,18)} 등 기존 맥학의 문제점이나 맥상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구별 기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보여 진다. 단지 김종열²⁰⁾ 등이 여러 맥상에 대해 맥박의 간격, 맥압의 강도, 맥의 깊이, 맥의 굵기와 길이, 맥파의 파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맥진기의 개발에 초점을 맞춘 분류로서 『빈호맥학』을 근거로 임상경험을 결합해서 맥상을 12개의 기준으로 분류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빈호맥학』은 기존의 맥학 전문서인 『맥결』을 엄

격한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비판하면서 맥상 분류의 기준을 정리함으로써 이후의 맥학 발전에 있어서 표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전문서이다. 왜냐하면 맥학 전문서는 한권의 책 안에서 서로 상반되어지는 이론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빈호맥학』은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오류가 거의 없고 또한 맥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엄격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맥학 전문서에 잘못 기재되었던 뜻을 비판하면서 맥진상의 맥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엄격하지 못한 맥상 분류 기준의 폐해를 『빈호맥학』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빈호맥학』을 중심으로 맥학의 문제점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맥상 분류시에 용어의 혼용과 해석의 오류와 이로 인해 27개의 맥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짐을 살펴보았다. 또한 임상에서 진맥을 활용하면서 느낀 27개의 맥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맥관의 부침, 맥관의 곡직, 맥동의 지삭, 맥관의 굵기, 맥관의 두께, 맥관의 팽창과 수축시의 맥관 지름 차이, 맥관 팽창과 수축시의 시간 차이, 맥관의 경계가 뚜렷한지 희미한지, 맥관 안의 혈류 흐름의 속도, 맥관 안의 혈류량의 차이, 맥관 안의 혈액의 양태, 맥

관의 추진력 등이다.

환자를 고치는 실제 응용 학문인 한의학에 있어서 전문 용어의 통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록을 남기고 누구나 그 기록을 읽고 이해해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의학도 요즘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용어의 통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맥학에 있어서는 혼용이 많아서 맥을 볼 줄 아는 사람끼리고 같은 맥을 다르게 말하거나 다른 맥을 같은 맥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한가지 맥상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맥상을 표현하는 기준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기존의 맥상이 어느 기준에 합당해야 바로 그 맥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정립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맥학의 발전은 학문적 용어의 통일과 그것을 통해서 각각의 맥상을 현대적으로 정확하게 객관화하는 작업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낸 후에는 현재의 맥진기보다는 좀더 정확한 맥진기가 나올 수 있고, 또한 한의사들도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맥학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검색어 : 맥상, 맥학, 빈호맥학, 진단, 맥진

참고 문헌

1. 趙恩儉 主編. 『中醫脈診學』. 2次印刷,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14.
2. 朱文鋒 主編. 『中醫診斷學』. 1版1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9: 458-459.
3. 王雲凱 主編. 『中國名醫名著名方』. 1차인쇄,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3: 367.
4. 甄志亞 主編 傅維康 副主編. 『中國醫學史』. 1次印刷, 北京市: 人民衛生出版社, 1991: 313.
5. 이봉교, 박영매, 김태희 편저. 『漢方診斷學』. 3판. 서울: 성보사, 1992: 170-171.
6. 朴晸 譯. 『國譯 瀕湖脈學, 四言舉要, 奇經八脈巧 附脈訣巧證』. 서울: 大星文化社, 1992: 11-64.
7. 여인석, 「한의학과의 서양의학의 만남-동서양의 의학교류를 바라보는 네가지 관점-」, 『동서의학교섭의 역사』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집, 대한의학회, 1999: 4.
8. 長春中醫學院 외. 『中醫診斷學』. 1차인쇄,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84.
9. 장용우, 임진석. 「황제내경에 나타난 맥진법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8: 11(2): .
10. 김태희. 「맥진(脈診) 방법에 대한 내경(內經) 과 후대

- 의 가설의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11. 남두연, 김태희. 『난경』에서 안맥(按脈)의 경중(輕重)에 따른 오장배속방법에 대한 『맥경』 및 후대의가설과의 비교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2: 6:
 12. 백정의(白貞義). 「중국 고대 맥진(脈診)에 관한 연구-내경(內經), 난경(難經), 상한론(傷寒論)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3. 김현(金憲). 「맥경(脈經) 진맥(診脈) 방법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4. 성백만(成百萬). 「맥경(脈經)의 맥형상지하(脈形狀指下) 비결(秘訣)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5. 노스텔라. 「맥경(脈經) 권지육(卷之六) 장부증맥(臟腑證脈)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6. 김무신(金武信). 「인영 기구 비교 맥법(人迎氣口比較脈法)의 정량화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7. 박영배. 「맥진기의 현황과 전망」. 『대한한의진단학회지』. 1997: 1(1): 86-94.
 18. 허웅, 김현규, 함광근, 박영배. 「脈率檢出장치의 개발과 임상적 의의」. 『대한한의진단학회지』. 1997: 1(1): 95-102.
 19. 이시진. 『瀕湖脈學譯註』. 1판. 中醫古籍出版社. 1988.
 20. 김종열, 김경요, 고기덕. 「맥진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지』. 1999: 3(1): 28-36.